기술개발성공사례

정보유통의 개척자로 국내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하고있는 〈주〉삼보정보통신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정보를 DB화하여 전화 한통화로 각종 시험안내에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정보유통서비스의 개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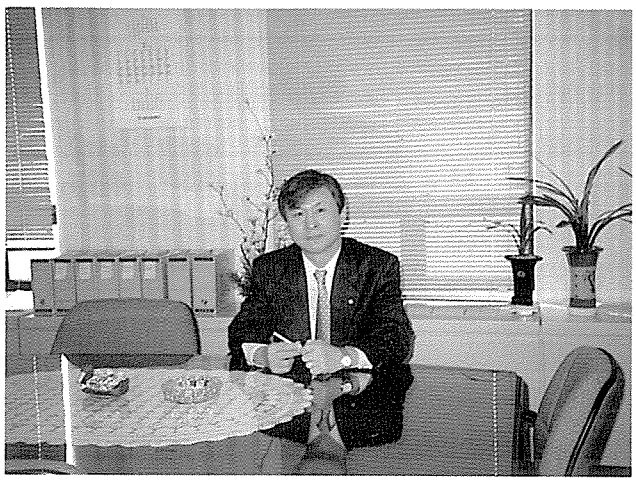
〈주〉삼보정보통신

『〈주〉삼보정보통신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정보통신'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이 회사의 吳根秀사장은 『'정보통신'은 구별돼 있는 정보(information)와 통신(communication)을 잘 융합하여 산재해 있는 정보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전화정보처리」 先頭走者

이런 맥락속에서 탄생한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88년 삼보컴퓨터의 통신사업본부로 발족하여 92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였다. 미디어, 네트워크의 통합에서 또한 정보유통의 개척자로서 국내정보통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는 「삼보정보통신」은 특히 전화정보처리시스템에 있어 거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보는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방대한 국가기술자격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화 한통화로 각종 시험안내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계제일의 DB를 구축해야 정보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오근수 사장



그래서 항간에는 정보통신산업체에서 기계나 시스템 제작외에 서비스업까지 하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정보유통 서비스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 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사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나 정보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발굴, 가공하여 전문화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정보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세계특허정보전문업체인 DERWENT사를 방문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오사장. 세계 1백29개국의 특허만을 전담하는 이 회사는 각 특허청에 출원했거나 현재 출원중인 원본을 받아 5백명이 넘는 전문가를 통해 이를 다 번역토록 하고 원본은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모든 자료가 DB화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된다면 자료 하나를 뽑아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별히 차별화된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야말로 2등은 필요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과 공익을 위한 전문

정보를 발굴하여 세계에서 제일가는 DB를 구축하지 않으면 정보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전문화된 DB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오사장은 피력한다.

「삼보정보통신」이 일반인에게 그다지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통신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PC통신이나 음성정보(700)서비스처럼 이용자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특별히 회원에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PC통신과는 달리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쌍방향 정보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Fax정보시스템 개발은 음성정보에 팩스기능까지 추가한 것으로 음성으로 한계가 있고 문자로 표현이 곤란한 정보를 전화기나 팩스기, 또는 PC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한 후 수신할 팩스번호만 누르면 정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민원안내 '척척'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IVR(Interact Voice Response)시스템(모델명 ; 젬다이알)의 개발에 성공, 지방병무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바 있다. 병무안내시스템의 경우, 전화기로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현역입영 및 방위소집일자까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관공서 중 은평구청의 민원안내시스템은 역시 전화 한통화로 민원사무를 자동으로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민원신청을 접수받고, 민원인이 취업을 원할 경우 성별, 연령, 학력, 희망직종, 보수수준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직장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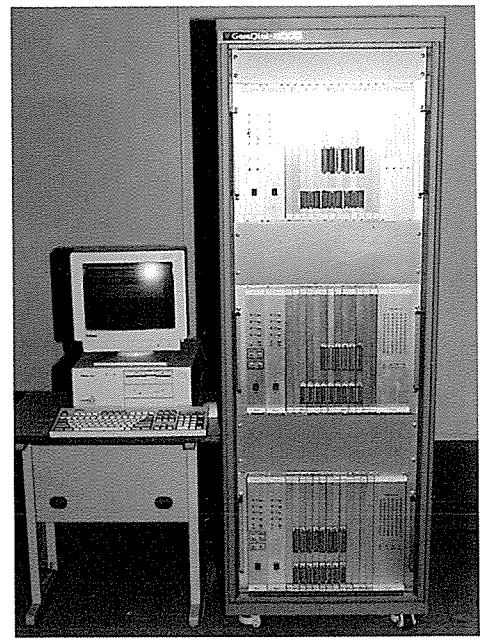
『정보는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한가지 지식이건 상식이건 모두가 정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정적으로만 접하던 정보가 아닌 각종 기관통신이 설치한 통신망과 연결돼 있는 단말기(전화, 팩스, PC)를 통한 정보사용이 많아질수록 정보 마인드는 커지고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는 정보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사장은 설명한다.

모든 정보 수요자 위주로

또한 「삼보정보통신」의 기술개발능력은 「미디어통합처리장치」(제품명 GemDial - 6000)를 개발하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젬다이알 - 6000」은 기존의 음성 위주의 서비스장치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매체변환기능(문자정보를 음성이나 팩스정보로 변환, 그래픽정보를 팩스정보로의 변환)을 가지고 이용자의 단말환경에 맞는 정보형태로 변환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매체통합서비스는 이용자의 단말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고 유선중심의 장소, 장비지향적인 음성위주의 균일서비스에서 사람(개인)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 개념의 관점이 전환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젬다이알 - 6000은 통합사서함(Unified Messaging)과 통합정보검색(Integrated Information Response) 기능을 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통합사서함(Unified Messaging)은 전자우편 가입자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가입자가 직접 PC를 켜고 찾아보지 않더라도 가입자에게 일반전화나 휴대폰, 무선호출기가 있는 곳에 자동으로 메시지 수신을 통보하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음성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 삼보정보통신에서 개발한 미디어통합처리장치 젬다이알- 6000

또한 송수신보장 팩스서비스로서 팩스메시지를 송·수신 할 때 송(수)신측이 통화중일 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시스템을 교환기와 연결하면 송(수)신된 메시지를 일시 저장하고 있다가 통화중이 풀리면 자동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팩스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전은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측면이 매우 강조되는 분야다.

「삼보정보통신」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미디어의 흐름을 수요자중심의 정보서비스로 완전히 뒤바꾸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삼보정보통신은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유통체제 구축과 정보를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